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주는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아파트처럼 관리인이 따로 있지 않은 단독주택지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이러한 단독주택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관리인을 두는 제도다. 2019년에 시작해 어느덧 3년 차를 맞은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도입 초기 5곳을 시작으로 올해는 1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 사진. 김은영(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재활용 분리수거부터 주민 긴급지원까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주체가 없다. 때문에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전범죄의 우려가 있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2019년 7월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가 도입됐다.

우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300가구 이상인 지역을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지역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안심관리인 1인을 선정한다. 선정된 안심관리인은 안심관리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중점 순찰,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순찰, 도로 파손 및 가로등(보안등) 불량 조치, 빈집·방치된 공사장 등에 청소년 출입점검, 홀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긴급지원, 경로당 등 거점을 활용한 택배 수취·보관 등이다.

3년 차를 맞은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는 2019년 덕양구 주교동, 행주동, 성서1동, 고양동, 관산동 등 5곳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화정1동, 흥도동 등 8곳이 늘어 13곳이 됐다. 도입 3년 차인 올해는 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곳에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가 운영된다.

안심관리인 A 씨의 하루

30년이 넘는 단독주택이 300가구 넘게 밀집된 어느 관산동 빌라 골목. 단독주택 안심관리인 A 씨는 오늘도 골목을 두루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무단투기한 쓰레기봉투 위에 경고문을 붙이고 한 달째 방치된 대형 매트리스는 구청에 전화해 수거를 부탁한다.

동네 홀몸 어르신을 살피는 것도 안심관리인의 업무 중 하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대신 양곡 신청도 해드렸다. 얼마 전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동네 주민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소개해주었다.

안심관리인 명찰을 보여줘도 당신이 뭐냐며 호통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지만, 한결 깨끗해진 골목과 반겨주는 이웃 덕분에 뿌듯함을 느낀다.



1. 분리수거 활동
2. 단독주택지 방역활동
3. 동네 홀몸 어르신 돌봄 활동

고양시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관련 부서 건축디자인과 문의 031-8075-3134